

“비정상의 나라, 하루빨리 정상화 되도록 만들고 싶어요”

르포

‘장사진’ 이룬 광주 사전투표소 가보니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을 찾았어요. 하루 빨리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좋은 세상이 오면 좋겠어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오전 6시.

광주 서구 풍암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사전투표소 앞에는 이미 50m가 넘는 긴 줄이 늘어서는 진풍경이 펼쳐졌고 시민들의 표정에는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굳건한 의지가 역력했다.

힘든 몸을 이끌고 지팡이를 짚으며 투표소로 향하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사전투표소 입구에 공지된 한 후보의 허위 사실 경력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유권자의 권리 행사가 단순히 투표 행위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줬다.

이날 서구에 주소를 둔 유권자들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확인을 거쳐 7명의 후보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로 들어갔다.

첫 번째 투표자인 한상원씨(78·여)는 “새로운 대통령은 민생·경제·안보·외교 등 국민이 잘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당선인은 현재 좌우로 갈라쳐져 있는 국민 통합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 역시 희망찬 사회를 바라며 후보자를 선택했다.

김광우씨(68)는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대통령을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의 경제가 후퇴한 만큼 당선인은 경제를 제일 우선으로 미래 비전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모씨(22)는 “비정상이었던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한 표를 행사한다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했다”며 “20대 청년들은 연금 문제에 예민하므로 기성세대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후보가 당선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같은 날 전남대학교에 설치된 복구 용봉동 사전투표소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로 북적였다.

대학교 수업을 듣기 전 투표소를 방문한 20대 청년들과 교수, 지역주민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투표장으로 들어섰다.

투표관리원은 관내·외 유권자들의 동선을 분리했고, 신분증을 미리 꺼내면 빠르게 투표를

시민들 이른 아침부터 50m 긴 줄 투표 도장·팻말 배경 인증샷 남겨 생애 최초 유권자 고교생들 눈길 “민주발전 위해 기꺼이 한표 행사”

할 수 있다고 거듭 안내했다.

투표용지를 챙긴 청년들도 기표소 내부로 들어가 원하는 후보의 이름 옆 기표란에 표시했고, 조심스럽게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으며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했다.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손등에 찍어 온 투표도장과 사전투표소 팻말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으며 투표 참여 기쁨을 누렸다.

이소진(22·여) 전남대 일어일문학과 학생은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로서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했다”며 “이번 대통령은 대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년 기본소득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참정권을 얻게 된 광주지역 학생 유권자들 또한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지역 학생들은 화정2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다.

이정선 교육감과 함께 온 학생들은 최장우군(서석고), 하유성군(광덕고), 김지연·노명선양(광주여고) 등 4명이다. 특히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투표 방법과 주권 행사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과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최장우 학생(광주 고등학교 의장)은 “이번 선거가 개인적으로 생애 첫 투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거이기에 더욱 신중하게 고민했다”며 “고등학교 의장으로서 민주 시민의 권리를 솔선수범하겠다는 마음으로 사전투표에 임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생애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학생들과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해 더욱 뜻깊었다”며 “광주지역 새내기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길 수 있도록 교육청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는 50대 남성이 선거관리원을 폭행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환준·이수민 기자



2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기위해 전남대학교 용봉동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들이 투표소 밖까지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지역 교육단체 “고3 유권자 투표권 실질적 보장을”

“모의고사 대비 교육활동 예상”

광주지역 교육단체가 2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고등학교 3학년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광주시교육청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그러나 단순 홍보만

으로는 지역 고3 학생 유권자 6,442명이 실제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달 4일에는 본 선거 직후 전국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평가가 실시된다”며 “이번 모의고사는 역대 최대 인원이 응시하는 시험으로, 수능 준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고등학교는 선거 당일에도 등교 후 모의고사 대비 교육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돼 학생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상당수 학교가 오전 8시 30분까지 등교시간을 정한 상황에서 사전투표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우려했다.

시민모임은 “선거는 민주주의를 가장 생생하게 체험하는 교육이며, 학생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발판이다”며 “학생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환준 기자

전남교육청,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속도

전남도교육청이 내년 외국인 유학생 모집·선발을 앞두고 체계적인 유학생 유치·운영 기반을 마련하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쿠바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제 교류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누리집 내 ‘외국인 유학생 모집·선발’ 메뉴

를 개편해 접근성을 높이며 유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정책 연구와 공정하고 투명한 유치·선발 시스템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학교는 기존 5개교에서 6개교로 늘어난다.

새롭게 참여하는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는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개교 준비위원회와 시설협업체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공간

구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미래국제고는 직업교육 중심의 공립 대안학교로,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학생 유치·운영 사업은 ‘전남형 글로벌 인재 양성’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국내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생애 전환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 학생들에게는 다문화 감수성과 글로벌 진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최환준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2017 건강기능식품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그린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 섭취량 중 총 다당체 함유량이 300mg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
■유통전문판매원 : ㈜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